



비법전수 ... 지난 14일 팔정도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이실열·기정교육) 양성평등상담사와 경찰청
정학과(학과장=이윤호)가 함께한 호신술 교실이 열렸다. 이날 양성평등상담사는 호신술 교실 이외
에도 생리주기 핸드폰 줄 만들기 행사를 기획해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 leeshin@dongguk.edu

목격대동제, 예년보다 축소 시행

총학 부재에 따른 결과 ... 백상응원전·락페스티벌은 열려

동학의 5월을 학생들의 끼와 패기로 가득 채우던 '목격대동제'가 대폭 축소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학생회 선거가 잇달아 무산되고 비대위체제로 운영되면서 학생대표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라인호(생물4) 총학생회비대위장은 "학교 측에 목격대동제와 관련한 지원 요청을 했으나 축제를 운영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대동제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단과대별 축제날짜가 다르다는 부분도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교 측은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단과대 측

제와 함께 목격대동제까지 운영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해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한 주 동안 각 단과대 및 학과, 동아리 등에서 실시한 행사만이 열려 축제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다. 이정은(정치3)은 "그동안 목격대동제 기간에는 다양한 행사들과 공연, 강연회까지 열려 좋았으나 이번엔 다소 작게 진행돼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백상응원대제전과 락페스티벌은 예년규모로 열려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27번째로 열리는 백상응원대제전은 오는 22일 저녁 6시 만해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공연은 개그맨 이동업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이적이 초대가수로 출연한다. 또한 다음 날인 23일에는 중앙동아리인 'Fearless Dawn'의 주관으로 오후 5시부터 제 12회 락페스티벌이 열린다. 사랑의 열매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에는 이수라, 가시밴드, WON 등이 참여해 더욱 열기를 더해 줄 전망이다. 공연과 더불어 이날 0시부터 24시까지 ARS 모금운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홈페이지와 홍보도우미를 통해 전화번호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인 돈은 지구촌 공생회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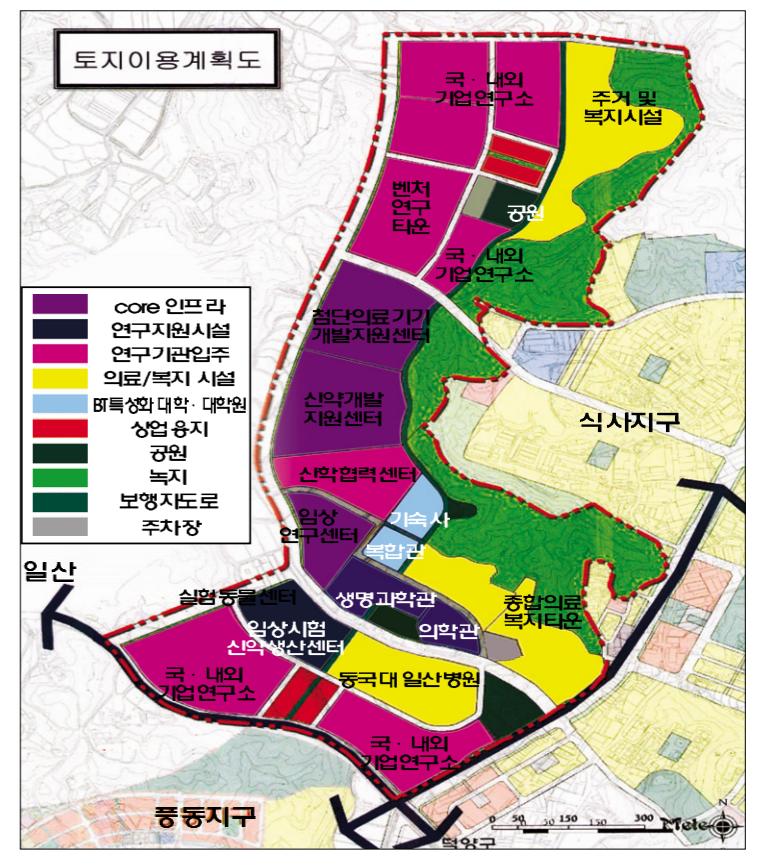
<우리대학, 경기도·고양시>

첨단 의료산업 단지 조성의

2011년까지 의생명과학 제3캠퍼스 건설 ... 기업투자도 적극 유치키로

우리대학과 경기도, 고양시가 공동으로 오는 2011년까지 고양시 식사동 일대에 의생명과학 캠퍼스를 건설하고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합의했다.
지난 15일 본관 교무위원회실에서 오영교 총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강현석 고양시장이 참석해 우리대학의 의생명과학캠퍼스와 지역 거점의 메디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영교 총장은 "의생명과학캠퍼스가 고양시에 문을 열게 되면, 세계 수준의 석학을 초빙하는 등 BT 분야를 우리대학 특성화 분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행정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및 기업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백상응원대제전과 락페스티벌은 예년규모로 열려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27번째로 열리는 백상응원대제전은 오는 22일 저녁 6시 만해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내 병원의 임상 인프라 및 의학적 문대학원·생명과학대학 등 우리대학의 BT연구 인프라 연계를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첨단 의료 기술 경쟁력 확보와 동북아 첨단 의료산업허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와 병원 및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같은 핵심지원시설과 연구지원시설 및 기업입주구역으로 구분되어 조성될 전망이며, 민간 기업들의 투자도 유치될 전망이다.
우리대학은 생명과학대를 제 3 캠퍼스로 이전하고, 메디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각종 연구 시설 및 임상연구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대학의 BT분야 특성화 강화와 정부 및 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져 대학의 대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학의 제도' 효과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수도권경비비에 따라 그동안 일산의 학교 소유 부지에 동국대병원만 운영해왔던 우리대학은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제 3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 대전 송도 부산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은 오는 9월 신청을



고양 메디클러스터 단지 이용 계획도

받아 전국에서 한 곳이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 한편 생명과학대의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학교 측은 "앞으로 생명과학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혜경 기자
zenobia@dongguk.edu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조연상에 빛나는 정선아 양

"뮤지컬은 ... 나의 사랑하는 연인"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2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뮤지컬 배우 정선아 양(연극4) 양의 얼굴에는 아직까지도 설레임이 묻어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자질 안 하이드, 맘마미아 등 다수의 작품에서 대중을 매혹시킨 그녀만의 매력을 들여다보았다.
"제가 일찍부터 공부 쪽은 아니라고 판단하셨나 봐요"라며 부모님의 뮤지컬에 대한 애절한 지원을 재치 있게 말하는 그녀. 정 양이 뮤지컬을 시작할 당시에는 뮤지컬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 혼자 공연을 보러 다니며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어린나이에 데뷔해 '운이 좋았다', 하루 아침에 '뮤지컬계의 신데렐라'가 됐다는 섭섭한 소리도 긍정적으로 넘겼으며 씩 웃어 보인다.
데뷔한 지 어언 7년이지만, 그녀에게도 아직 무대는 어렵다고. "공연 중에 웃음을 참기가 제일 힘들어요. 슬픈 씬이 있는데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바람에 신배들에게도 '너도 배우로서 부끄러웠어요.' 공인 마다 이어지는 찬사에 이따금까지 받은 그녀이지만 여전히 신인 같은 겸손함이다. 뮤지컬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에게 정 양은 뜨거운 열정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길 조언한다. "열정이란 노력과는 달라요.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열정은 본인의 절실한 마음이 아니면 결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요즘처럼 노래와 춤이 기본인 시대에는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자신만의 색깔을 녹여 내야 해요"라며 후배들을 위한 자상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내년 3월에 있을 뮤지컬 드림걸즈에서 디나 역을 꼭 해보고 싶다는 정선아 양. 그녀는 "평생 뮤지컬 배우로서 살아가기 보다는 배우를 양성하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보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2009년 드림걸즈 '디나'로서의 화려한 변신을 기대해본다. <활>
lan@dongguk.edu

경영관·사회과학관으로 동국관 명칭 변경

로스쿨 준비 과정에서 만해관이 법학관으로, 만해관 교수 연구동이 만해관으로 변경된 데 이어 이번 새로운 UI선포와 함께 동국관의 명칭이 각각 경영관과 사회과학관으로 변경됐다.
이는 기존에 동국관으로 통합해 사용하던 명칭을 분리함으로써, 건물별 주된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경찰행정학과 장학금 38명에 4천여 만원 전달

경찰행정학과(학과장=이윤호) 장학후원행사 수여식이 지난 달 28일 진행돼 4,240만원이 전달됐다. 이날 수여식은 이항우(경찰행정학) 교수, 이윤호(경찰행정학) 학과장과 경찰행정학과 총동장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과학관 M동 3층에서 진행됐으며 38명의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차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하동 쌍계사에서 열려

정각원(원장=홍조스님)에서 주관하는 차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22일부터 하동 쌍계사 국사암에서 시행된다. 1박 2일동안 하는 이 프로그램은 승가대학 교수인 월호스님의 지도로 진행되며 △차 뒤유 체험 △공양 △예불 △녹차 따기 체험 △차 문화 축제관람 등을 체험하게 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지난 달 23일부터 35명을 정각원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정각원에 제출하면 된다.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지난 7일, 미래지향 새 UI 선포식 열려

UI선포식 및 102주년 개교기념행사가 지난 7일 본관 중앙당에서 열렸다. 새로운 UI는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많은 동국인들의 환호 속에 레이저 퍼포먼스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오영교 총장은 "UI는 동국의 새로운 상징이자 우리대학의 새얼굴과 정신이 될 것"이라며 "변화한 이미지를 담은 새 UI는 쇄신된 동국브랜드로서, 새로운 동국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교직원 외에도 삼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새로 발표되는 UI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수상작 발표

유수진 외 11편 선정, 시상식은 20일
교수학습개발센터(센터장=이중권·수학교육)에서 주최한 스승의 날 기념 제 6회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에서 유수진(불교4) 학생을 비롯한 11편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사제의 정을 돈독히 하고 기어여에 남는 강의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널리 알려 면학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열렸다.

당선자	추천 강좌명	추천 교원
유수진(불교4)	유식학	우제선(불교학)
유지민(정보통신공3)	동양문화의 이해	박성순(국어국문학)
박용석(일어일문4)	일본문예강독	강석선(일어일문학)
임현빈(반도체과학3)	신호해석	정웅(이과대학 반도체과학)
김태호(경찰행정4)	경찰행정학특강	이항우(경찰행정학)
이상혁(국제통상4)	인사관리	성상현(경영학)
최유림(식품자원경제4)	식품산업경영실습	유덕기(식품산업시스템)
최재혁(기계공3)	동역학	곽문규(기계공학)
이홍훈(지교4)	역사지리	이혜은(지리교육)
이갑수(문창4)	현대문학이론특강	장영우(문예창작학)
김지연(광고홍보4)	크리에이티브 입문	이현정(광고홍보학)

이해랑 재단 20억 기부

예술극장 리모델링해 상급극장으로 활용

이해랑 연극재단이 예술극장 리모델링을 위해 써 달라며 20억 원을 우리대학에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세기 한국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이자 우리대학 연극과 교수를 역임한 해 이해랑(1916~1989) 선생의 장남인 이방주 이해랑 연극재단 이사장(현대산업개발 부회장)은 20억 원의 기부금을 예술극장 무대와 객석, 조명 등의 리모델링 및 고인의 연극관련 전시공간 마련을 위해 써 달라며 학교에 기부했다.
이방주 이사장은 "생전 연극을 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늘 아쉬워하셨었는데 아버지 이름 딴 소극장이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예술극장 로비에는 선생을 기리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개관작으로 '세자매'(연출=이윤택) '갈매기'(연출=신영섭) 등도 공연될 예정이다.
고 이해랑 선생은 1931년 일본대학 예술과를 졸업하고 연극인 김동원 선생과 함께 동경 학생 예술좌에서 연극가로 활동하다 현대극장을 창립하고 1951년 국내 최초로 '햄릿'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1959년부터 우리대학 연극과 교수로서 1981년 정년 퇴임때까지 후학들을 지도했으며 예총회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는, 동국의 명예를 걸고 세상을 비추는 밝은 힘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당당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변화를 주도해갈 동국대의 새 모습을 애정어린 관심으로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정원감축대상학과>

교수·학생 입학정원조정안 철회 요구

학교 측 “기본 방침 불변 ... 예정대로 실시할 것”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둘러싸고 정원감축대상학과 학생회, 교수회, 대학원 총학생회 등이 잇달아 철회 및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학교 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달 28일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이 발표된 직후 수학과 등 정원감축대상학과 학생, 교수들이 잇달아 대자보와 시위로 학교정원조정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공과대 전체 교수진은 6일 입학정원 관리시스템의 철회와 관련자들의 사퇴 요구 결의안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공과대 교수진은 결의문을 통해 “평가항목 선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평가자료가 반복적용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의 즉각 철회와 관계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과대 학생회(회장=이형근·생화공4)도 16일 분관 앞에서 반대 시위를 가지고 “인론 보도를 통해 해당과 졸업예정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해당학과 학생들을 배려한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학교 측을 성토했다. 이과대 학생회(회장=김철·통계4)도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분관 앞에서 입학정원관리시스템 철회를 요구했다. 김철 학생회장은 “기업의 경영 논리를 도입해 기초학문을 죽이려는 것”이라며 “학과 간 경쟁이 아닌 학교 간 경쟁이 돼야 한다”고 입학정원 관리 시스템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 다른 정원 감축대상 학과인 사회학과와 윤리문화학과 학생회도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확립하고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 같은 반발 여론에 대해 학교 측은 “학과간 경쟁과 제한된 자원을 경쟁력 있는 학과에 집중한다는 기본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

고 “1년간 평가과정을 지켜본 후에야 일부 평가항목의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 조정은 ‘평가하위학과에서 감축된 입학정원은 신설학과, 정책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학과에 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달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축대상이 아닌 학과의 교수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평가 상위학과와 한 교수는 “사립학교는 국립대학교 달리 자원이 제한적”이라며 “효율적 학교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아니냐”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과의 교수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은 시대의 조류에만 편승했을 뿐”이라며 “개별 학문의 잠재적 가능성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동약코에서

즐거움을 나누다

“나눔은 또 다른 축제입니다. 당신의 조그만 정성이 케냐의 어린이에게 생명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나올 법한 구세군의 목소리라 오해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축제’가 한창이던 지난주, 우리대학 팽정도에 올린 소리다. 페락과 소비위주의 장이라고 비판 받아온 대학축제에 ‘나눔’이란 색이 새로 트고 있다.

우리대학 참사랑봉사단(단장=조훈영·물리학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2008 캠퍼스 나눔 도전’에 서울 시내 4개 대학과 함께 참여했다. 우리대학의 ‘나눔 축제’에는 108리더스, 동감, 손짓사랑회, 하람 등 여러 학생 단체가 참여해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팽정도에 나눔카페를 설치하고 모금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해서 모인 기부금은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생명의 우물 만들기 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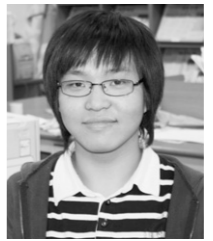
사랑봉사단 관계자는 “축제 속에서 동국인들이 즐거움 나눔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케냐 마사이족의 물 부족 체험’이란 주제의 나눔 카페에서 봉사활동을 한 108리더스의 김인호(생화공3) 군은 “케냐인들이 겪는 물 부족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지 알게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직접 교수, 학생, 교직원들을 찾아가 모금활동을 한 ‘동감’의 이선미(교육2) 양은 “기부자들이 소박한 주전부리에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금의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눔카페 현장을 지켜본 정동훈(경제2) 군은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열의에 찬 모습에서 슬마시고 놀기만 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축제와 다른 ‘따뜻

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학축제는 상업성과 소위 ‘먹고 노는 문화’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눔 축제’는 무절제한 축제문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듯하다. 물론 대학축제는 학생들이 대학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 하지만 즐기는 시간 속에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고 나누고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어떤가? 이번 ‘나눔 축제’가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한전부터

실천이 필요해

○...강의평가 공개당시엔, A군 : “강의때 불만이었던 상황이 많았는데 잘됐네”

1차 강의평가 시, A군 : “강의평가 해야되는데 귀찮네. 다음에 하지 뭐.”

2차 강의평가 시, A군 : “강의평가? 안해. 귀찮아.”

결 다르고 속다른 태도, 죽일놈의 고질병?

딴 짓도 가려가며

○...다이어리, 좀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사진댓글, 좀 달 수도 있는거잖아? 과도타기, 좀 다닐 수도 있는거잖아?

동영상, 좀 볼 수도 있는거잖아? 근데 거기 프린트 전용 컴퓨터라고 붙어 있는 건 안보이니? 여기는 컴퓨터 실습실 이용에터까지 하나하나 짚어줘야 하는 동국어린이집?

처음 만날 그때

○...계절학기 수강 신청 하려하니, 어떤 교수가 강의하는지 몰라 난감해

누가 강의하는지도 모르는데 신청해야하더니

첫 강의 때 공개할 당신의 정체, 다함께 맞춰 볼까요?

무늬만 첫 강의

○...외국어교육센터가 주관하는 토폴 강의, 첫 강의부터 제대로 토폴치려 했건만.

첫 강의일이 언제인지 공지 없이 세월만. 결국 첫 타석부터 아웃!

수업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비밀 수업?!

요즘 수업은 두 번째부터가 트랜드?



이름에 걸맞게 ... 지난 14일 경영관 열람실과 강의실의 새로운 현판제작식이 진행됐다. 열람실 L110호는 ‘비즈마루’ L501호 강의실은 성덕강의실, L401호 강의실은 C&S Hall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진 속 ‘비즈마루’는 비즈니스의 ‘비즈’와 꼭대기, 으뜸이라는 뜻의 순 한글말 ‘마루’의 합성어다. <중> wondergirls@dongguk.edu

충무로역 - 후문, 이제 보행자가 우선

중구청, 환경개선공사 시행 ... 보다 안전한 통학로 기대

위험지대였던 충무로역에서 후문까지 환경개선공사가 이뤄져 앞으로 보다 안전한 통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구간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들로 인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곳이다.

이번 환경개선공사는 보다 나은 대학가 환경과 문화의 구축을 위해 중구청(정장=정동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30일에 완공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 공사는 일명 ‘녹두 사거리’로 통칭되는 거리들

중심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학사길에 차량속도 제어를 위해 절곡형 차선을 구축하고 보도 신설과 보도 폭 확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포 만들어진 충무로 이면도로를 새로 보도 포장해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은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보행자 우선을 위주로 하여 계획된 이 공사에는 우리학교 후문 쪽에 한 개의 보도를 두 개로 늘리는 계획과 가로등 설치가 포함돼 있어, 향후 학생들의 통학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에 대해 김의선(경제2)

양은 “그동안 무분별한 차로 인해 다닐 때마다 위험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이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건축과 정진호 주임은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학생들이 안전한 도보에서 통학할 수 있는 대학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학교 주변 환경개선공사의 시행목적이나 기간을 알려주는 공사 표지판이 없어, 학생들이 ‘왜 이 공사가 시행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신> leeshin@dongguk.edu

명진관 등 학내 5곳에 CS폰 설치

학생들 민원 해결 편리해 질듯

정보 관리실(실장=김양우·정보통신공학)은 지난 15일 학내 곳곳에 CS폰을 설치했다.

CS(Clover Service)폰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 설치한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자신들의 민원을 해당 부서

에 문의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 전화는 명진관, 학림관, 사회과학관, 문화관 정보문화관 등 총 5곳 1층 복도나 로비에 설치돼 있으며 전화기 앞에 있는 교내 연락처 및 캠퍼스맵을 보고 부서 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 민원을 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언론정보대학원 20주년 세미나 개최

‘미디어 융합시대의 한국 언론’ 주제로

언론정보대학원(원장=강성운·북한학)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미디어 융합시대의 한국 언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20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언론정보대학원은 “언론환경의 변화는 미디어산업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치와 견해

의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며 “학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소피텔 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언론정보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2008학년도 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장학명 (장학금액) : 우수장학 (등록금 30%)
 1. 단과대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2.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3. 보존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상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
 1. 2008-1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4학년은 12학점),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취득학점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2.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는 유리한 장학금 선택이중우수가 가능한 장학금은 예외
 3. 2008-2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 신청기간 : 2008. 5. 16(금) ~ 5. 30(금)
 - 신청방법 : 홈페이지/my-page/우수장학신청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면 on-line 상으로 제출이 완료 됨
 - 평가기준 : 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대학 학사운영실에 문의바람
 - 제출서류
 1.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 on-line 신청
 2. 사회봉사인증서
 -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학생경력개발원 사회봉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자동 접수 처리 됨.
 - 2) 동국대학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 처리됨.
 - 3) 사회봉사경력력은 졸업 시 까지 계속 인정됨.
 3.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접수 처리됨
 - 2008-2학기부터 변경사항
 1. 미등록 휴학생의 장학금은 복학 시 등록금에서 감면하여 지급 함(등록금감면 장학에 한 함)
 2. 장학금을 받은 기등록 휴학생이 복학 시 이중 장학수혜대상이 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음
 3. 2008-1학기 2차부터 강의평가 시행여부를 장학금 신청시 반영함. (반영정도는 지도교수의 기준에 의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 장학금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학사 지원 본부

충무(忠武)역사탐방장학 선발 안내

1. 충무역사탐방 장학의 취지

본장학은 동국대학교와 중구청이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의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고구려 지역 문화역사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인식 고취를 목적으로 함

2. 충무역사탐방 장학

- 가. 장학 혜택
 - 고구려 역사탐방을 통해 바른 역사인식을 제시할 수 있는 1~4학년 재학생을 선발하여 민족의 고토인 고구려 지역의 역사탐방 기회를 부여함
- 나. 고구려 문화역사 탐방 내용
 - 1) 일정 : 2008년 6월21일(토)~26일(목) 5박6일
 - 2) 탐방 지역 : 삼양, 환인, 집안, 백두산, 대련 등 고구려 유적지
 - 3) 연수 경비 : 학교 지원 (1인당 100만원) / 학생 부담 (1인당 10만원)
- 다. 지원 자격
 - 1) 2008년도 1~4학년 재학생 중에서 선발 (휴학생 포함)
 - 2) 기타 상세 자격은 홈페이지 공고문 필히 참고하기 바람
- 라. 선정 기준 : 고구려 역사에 관한 보고서 및 학업성적
- 마. 제출 양식 (상세 제출 내역은 홈페이지 공고 필히 참조)
 - 1) 신청서 1부
 - 2) 고구려 역사에 관한 보고서
 - 3) 성적 증명서 1부
- 바. 제출기한 및 제출처
 - 1) 제출 기한 : 2008. 5. 22(목) ~ 23(금) 2일간
 - 2) 제출처 : 본관 3층 학생서비스팀 신지형
- 사. 선정자 발표 : 5월 30일 본교 홈페이지에 발표
- 아. 상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필히 참조하여야 함

5월 정기법회 봉행

‘불기2552(2008)년 5월 정기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동국 가족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가. 일 시 : 불기2552(2008)년 5월 23일(금) 오후 5시 ~

나. 장 소 : 정각원 법당

다. 대 상 :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

라. 법 사 : 정원 큰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각원

생활문화유적답사 참가자 모집

1. 생활문화유적답사 실시
 - 가. 생활문화유산사업의 일환으로 교직원, 학생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자 함.
 - 나. 실크로드 불교문화유적답사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각 구청원간 공동체성 회복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답사 기간 : 2008. 6. 23(월) ~ 7. 1(화) (예정) / 7박 9일
3. 답사 장소 : 중국(둔황, 우루무치, 투루판 일대)
4. 답사 인원 : 총 16명
5. 신청 접수기간 : 5. 14(수) ~ 5. 19(월), 18:00시까지
6. 면접 심사 : 5. 22(목), 23(금) / 면접장소 : 생활사무국(혜화관1층)
 - * 면접심사 시간 : 14:00 ~ 16:00(추후 변경할 수 있음)
7. 참가자 발표 : 5. 26(월) / 홈페이지 공고, 유선통보
8.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http://dgucoop.dongguk.ac.kr)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생활사무국(혜화관1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협동조합

기획연재 - 조벽 석좌교수에게 듣는다 ② 바람직한 재정 확보방안

기금모금 직원, 우리대학 8명 미시간 공과대학 154명

모금업무 전문가 조직 필요 ... 불교계와의 협력모금도 중요



기부금모금, 담당인력 뒷받침돼야

다른 대학보다 한 단계 높은 기부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기부금 모금을 담당하는 조직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미국의 미시간 공과대학의 경우 학생 수가 약 2만 여명인 규모의 대학이다. 지난해 미시간 공대의 총 기부금은 2억 9천 3백만 달러(2930억 원)다. 현재 기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154명이다. 기금모금 및 투자업무는 미시간 공대 대학본부 내에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전문가를 고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많은 전문 인력이 고용된 만큼 세부 부서별로 다양한 일들을 한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도 기금모금 부서 조직원은 200여 명, 플로리다 주립대학은 150명이다.

기부자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미국 대학들도 기부금액이 매우 큰 경우 기부자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총장이 직접 나선다. 이 때, 단 하나의 프로젝트나 건물을 짓기 위한 모금이 아니라 일종의 메뉴얼처럼 다양한 기부메뉴를 제시한다. 몇 백억 단위부터 몇 억 단위, 장학금부터 도서관, 기숙사와 같은 건물 설립 기금까지 기부자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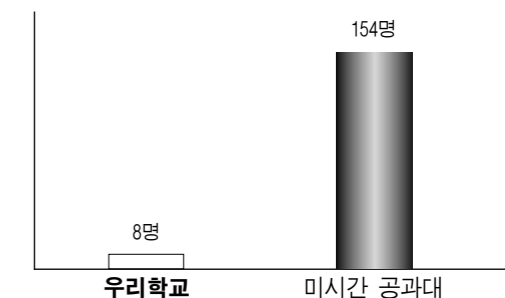
또한 단순히 문서를 제시하거나 프레젠테이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라면 설계도부터 실제 모형까지 만들어 확실한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기부자들은 돈을 주기 싫어서 기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의미하게 돈이 쓰여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비전을 확실히 보여주고 기꺼운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고 조 교수는 조언한다.

한 번의 기부로 그치지 않고 다음 기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한 번의 기부를 위해 오랜 시간과 사람을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부담 없이 관계를 이어오며 학교와 한 배를 탔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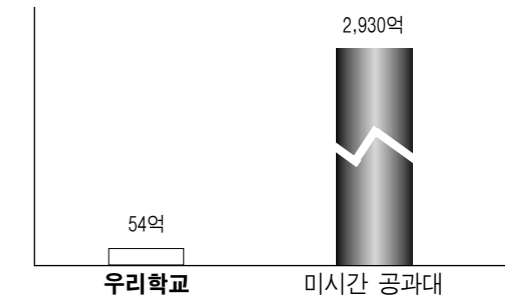
2007년 기부금 모금 상위 미 대학

대학	모금액(원 환산액)
스탠포드	8,323억
하버드	6,140억
서던 캘리포니아(USC)	4,696억
존스홉킨스	4,304억
콜롬비아	4,238억

우리학교, 미시간 공과대학의 기부금 담당부서 직원 수



우리학교, 미시간 공과대학의 2007년 총 기부금



개교 102주년을 맞은 우리학교. 현재 많은 길들과 혼란 속에서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강의평가, 재정문제, 우수인재 유치에 대한 노력 등에 대해 우리학교 조벽 석좌교수의 제언을 들어보고자 연재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글 쓰는 순서

1. 강의평가제도 발전방안
2. 바람직한 재정 확보방안
3. 우수인재 · 우수교수 유치방안

대학들이 재정확보를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에는 한계가 있고 대학에서 수익사업을 벌여 성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재정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기부금 모금이 절실하다. 이는 비단 국내 대학들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한국보다 기부금 모금에 주력한 역사가 깊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대학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대학의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학교 조벽 석좌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조언을 구했다.

美 대학 기부금, 최고 8,320억 원

지난해 우리학교 총 기부금은 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리학교는 매년 기부금 목표치를 50억 원으

로 책정하여 이를 초과달성해 왔으며 올해는 이보다 두 배 가량 많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교육후원위원회에 따르면, 작년엔 미국 전체 대학들이 받은 기부금은 300억 달러(28조 2000억 원)를 기록해, 전년보다 6% 늘어났다.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일수록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상위 1%의 대학이 미국 전체 대학의 기부금중 25%를 차지한다.

스탠포드 대학이 지난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다. 그 금액은 8억 3천 2백만 달러(8,320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하버드대학이 6억 1천 4백만 달러(6,140억 원), 콜롬비아 대학이 4억 2천 3백만 달러(4,230억 원), 예일대학이 3억 9천 1백만 달러(3,910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조벽 석좌교수는 "명문 대학들에게 기부금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100억 원 정도는 상위 몇몇 대학이 아닌 평범한 일반대학이 1년 안에 충분히 모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부금 모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기부금이 가지는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 교수는 대학의 입장에서 기부금은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접근 방식부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이 어려우니 돈을 달라', '지난번에 기부했으니 한 번 더 하는 것은 어떠냐' 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기부금 모금은 구걸이 아니다. 기부자들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대학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냐', '우리대학의 꿈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투자를 의향이 있느냐'는 식의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 부서 조직원은 200여 명, 플로리다 주립대학은 150명이다.

우선 동문을 비롯한 개인 기부자와의 관계유지, 재단·기업과의 관계유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나눠져 있다. 또한 기부금 기록 작업, 기부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사, 유산기탁 및 자산관리, 법적 관리, 동창회 관리 등의 세부 부서로 나눠져 기금모금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유산기탁 및 자산관리는 고령의 기부자들에 대한 서비스로 매년 일정수준의 연금을 보장해 주면서 재산관리를 해 주고 남은 유산 기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준다.

한편 현재 우리학교의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개발 및 금융투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사업개발 본부다. 사업개발본부의 직원은 8명이다. 종전에 대외협력처가 담당하던 발전기금의 모금만으로는 재정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본부 내에 대학재정확보를 위한 본부를 신설했다.

천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그에 상응하는 수의 조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우리학교의 현재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조직원 개개인의 능력보다 조직 규모와 시스템 자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조벽 교수는 "충분한 인력 없이는 기대하는 만큼의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금 관련 부서의 인력은 꼭 대학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모금하는 기부금 액수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독립된 기관이 전문적으로 기금 조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달이 먼 저나 달같이 먼저나'를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입할지는 각 대학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조벽 교수는 "공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결과도 이끌어 낼 수 없다. 한 명의 직원이 담당할 수 있는 기부자 수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부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각각의 기부자에 대한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최근 각 대학들은 여러 기부 대상자 중 동문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모교 출신이라는 끈끈한 애정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액수 면에서 보면 일반 동문들이 기부하는 금액은 기업들이 내는 액수에 비해 적지만 재학생, 교직원과 함께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동문 참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학교는 현재 총동문회의 동문 연락처와 방학 중에 동문 콜 센터에서 작업한 명단 중 연령대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추린 4만여 동문들에게 발전기금 마련 홍보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문들의 기부금 참여비율이 60%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부모가 기부를 하는 경우, 오랜 기간 대학에 재직했던 교수의 기부 참여도 종종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문 참여율이 10%이다. 이는 국내 대학들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 확보로 '모금기술' 가져야

한국 대학들이 기부금모금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지는 1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모든 대학이 전문적이 아닌 아마추어의 수준이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각 대학마다 기부금모금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프로들이 나올 것이라고 조벽 교수는 전망한다. "한국대학들과 미국대학의 기부금 모금액 차이가 큰 이유에 기부금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기부금 모금과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과 기술 차이가 더 크다. 앞으로는 프로들의 전쟁이 될 것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기술'이 필요하다. 관건은 어느 대학이 얼마만큼의 투자를 통해 얼마나 빨리 이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활용하느냐이다"

이제 대학의 기부금이 돈 많은 재벌의 체면치레로 모아지는 시대는 지났다. 대학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시대. 잠재 기부자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에 대한 신뢰와 비전을 심어주는냐를 고민해야 한다. 마지못해 하는 기부가 아니라 스스로 학교발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기부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초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기부금 모금을 위한 현재의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가 아닐까.

최미혜 기자
lmissionaral@dongguk.edu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2008학년도 후기

www.dongguk.edu

대학원	홈페이지	전화번호	모집과정 / 학과	접수일자	전형일자
영상대학원	dic.dongguk.edu	02)2260-3763~4	■ 모집과정 : 석사, 박사 ■ 모집학과 : 문화콘텐츠학과, 영화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	2008.05.13(화) ~ 2008.05.19(월)	2008.05.30(금) ~ 2008.05.31(토)
불교대학원 (야간)	gsbs.dongguk.edu	02)2260-3096~8	■ 모집과정 : 석사, 지도자 불교학과(불교학, 선학) 불교문화콘텐츠학과(다도·생활예절) 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생사의례학과(생사의례학)	2008.05.19(월) ~ 2008.05.30(금)	2008.06.05(목) 17:00 ~
행정대학원 (야간)	gspa.dongguk.edu	02)2260-3102~3	■ 모집과정 : 석사 행정학과(행정학, 정책학, 지방자치) 안보·북한학과(외교국방, 국방회독, 군사전략, 안보정책) 공안행정학과(경찰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법행정) 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	2008.05.19(월) ~ 2008.05.29(목)	2008.5.31(토)
교육대학원 (야간)	gsedu.dongguk.edu	02)2260-3110~1	교육학과(교육행정, 상담심리, 유아교육) 교과교육학과	2008.05.19(월) ~ 2008.05.28(수)	2008.06.14(토) 14:00 ~
언론정보대학원(야간)	gsci.dongguk.edu	02)2260-3733~5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인쇄출판학과(출판집지전공, 인쇄화상전공)	2008.05.19(월) ~ 2008.05.29(목)	2008.05.31(토) 10:00 ~
문화예술대학원(야간)	gsca.dongguk.edu	02)2260-3606~7	문예창작학과(시, 소설·드라마) 공연영상예술학과(공연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예술경영학과(공연예술경영, 조형예술경영) 예술치료학과(미술치료)	2008.05.13(화) ~ 2008.05.23(금)	2008.05.31(토) 10:00 ~
국제정보대학원(야간)	gsiai.dongguk.edu	02)2260-3733~5	정보보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IT-Business학과	2008.05.19(월) ~ 2008.05.29(목)	2008.05.31(토) 14:00 ~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http://mba.dongguk.edu

Double Chance, Dual Degree!

UTD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dongguk UNIVERSITY

GMAT 면제받고 텍사스대학 학위 취득! 한국 MBA에 미국 MBA까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경쟁에서 앞서 갑니다. 지금, '동국 비즈니스 스쿨'의 MBA 멤버가 되십시오. 당신의 더블 찬스, 그리고 동국대학교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127년 전통의 명문대학인 텍사스주립대학 시스템의 일원.

2007 미국 MBA평가 53위 (U.S. News)
GMAT면제
국내 수준의 저렴한 학비

Dongguk Business School MBA 프로그램

General MBA : 최신경영이론과 실무지식 제공을 통한 전문경영인 양성
Culture-Oriented MBA : 엔터테인먼트경영, 스토리텔링, 문화산업전략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화된 문화경영관리자 양성
Entrepreneurship MBA :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 기업의 환경전 경영자원을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업경영능력 배양

2008 후기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2008년 5월 13일(화) ~ 6월 5일(목)
· 02-2260-8884~5

제4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를 들여다 보다

불교학 세계화 주도하는 각국 석학의 담론의 장

15개국 80여명의 학자 참가 ... 확대 발전 위한 우리대학 주도적 지원 필요

지난 17일과 18일, 우리 학교가 불교의 세계화, 세계의 불교화를 위한 거대한 담론의 현장이 됐다. 제 4차 한국 불교학결집대회가 열린 문화관 곳곳의 강의실은 다양한 논문 발표가 이루어지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의견이 오고 갔다.

불교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총 정리이자 교류의 장이 된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는 2002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는 여러 불교학 연구 학회의 대표들이 모여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불교학회'가 필요하다는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매회 다른 학술단체가 집행을 맡게 되는데 이번 해에는 한국불교학회가 주회를 했다.

이번 결집대회에서는 접수된 많은 논문들 중 엄선한 외국학자 80명, 국내학자 80명의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외국 학자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 '세계적인 학술대회'라는 취지가 부각됐으며 세간의 관심이 높아져 지원도 많아졌다. 한

국불교학결집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표되는 논문들이 어떠한 학문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결집대회는 △인도 불교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불교 △중국 불교 △한국불교 △일본불교 △선불교 △불교사학 △요가 및 불교명상 △불교 예술 △응용불교 총 10개의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탄탄한 기존 불교학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현대 생활에 적용되는 불교학의 다양한 논의였다.

특히 응용불교 분야에서 이범수의 '49제와 유족심리치료', 성운스님의 '노인장기요양보현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교노인복지의 실현 방향' 등 불교 윤리, 불교생명, 불교명상, 불교상담, 불교교육, 불교문화콘텐츠 등의 16편이 발표됐다. 또한 도각스님의 명상심리치료와 정신분석적

료의 비교연구, 불교문화 콘텐츠 사업에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논의한 송정란 건양대학교 교수 등 다른 분과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뚜렷이 나타났다.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 실용화에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알릴 기회였다. 이평래 대외장은 불교학이 인문학의 힘을 실어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불교는 철학성과 종교성이 공존하는, 이론과 실천의 양날개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결집대회는 그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학결집대회의 청중을 위해 이러한 발표 준비를 했다던 각국에서 온 학자들을 위해서는 홈스테이와 템플스테이로 한국의 불교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홈스테이는 한국의 불자가정에 외국학자가 결집대회 일정일 동안 묵었는데 양쪽 모두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다. 외국학자에게는 일반가정에서의 한국불교를 느끼고 자신의 나라와 비교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한국 불자가정에서는 불교학에 대한 새로운 면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불광사의 강숙희 불자는 "이런 기회가 한국의 불교를 알리는 세계화의 일부일 것"이라며 봉사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한국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문의 장이 더욱 성장해야 한다.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할 학자와, 재정 그리고 통역이나 안내 등의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삼박자를 모두 갖추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학교가 중심에 서서 이러한 행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발표가 이루어지기 전, 샌다이 전 파견대학의 하야시 타카츠클 교수는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모여 기대되고 한국의 홈스테이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계기로 국내 연구자의 시야만



지난 17일 문화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요가&불교명상' 분과 발표자 서울불교대학원 조옥경 교수가 '관찰하는 지기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는 모습.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다양한 불교학자의 시야 또한 확장되는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불교학이 세계의 중심에서 불교학을 이끌 단단한 초석이 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한국불교학

결집대회가 될 수 있도록 5차, 6차 앞으로 향해가며 그 저변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발표자인터뷰 - 트리니티 대학 엘리스 핀들리 교수

“명상통해 에이즈 환자 회복 도와”

“명상은 제게 휴식 그 자체입니다.” 티벳 불교 전문가인 엘리스 핀들리(Ellison Findly) 교수에게선 알 수 없는 평화로운 아우라가 퍼져 나왔다.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 핀들리 교수는 이번에 “Lao Buddhist Monks And The Metta Dhamma Project”라는 논문을 발표 했다.

담마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의 사찰에서 스님들이 에이즈 환자에게 명상의 방법을 알려주고 불교의 계율에 동참시켜 그들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동참한 환자들은 스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명상에 잠김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환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아 존중감을 가지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성교육과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에이즈 환자들이 고립되어 있는 사

회 환경을 바로 잡았다. 일주일에 한번은 친구들과 함께 명상을 한다는 그녀는 “명상을 할 때는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내게 힘을 준다”며 명상의 효능을 극찬했다. 그녀는 명상의 방식으로 “명상을 할 때에는 명상 후 친구들과 사랑, 자비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달라이 라마 등 유명인사가 쓴 책에 대해 토론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명상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지 묻자 “명상을 즐기는 사람 수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듯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화를 하면 그 불결은 큰 불결기를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이 현대사회에 명상이 한 줄기의 불결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우리는 가끔 스트레스도 받고 관계에 대해 상처도 받고 많은 일에 피로를 느끼기도 하는데 이럴 때 그녀가 추천하는 명상 방법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상의 방법으로는 자(慈), 비(悲), 회(喜), 사(捨)가 있다. 이 명상들은 혼자



트리니티 대학 엘리스 핀들리 교수

아닌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의 담겨있는 내용에는 상대방에게 하는 축복의 기원문이 담겨져 있다. 그녀는 적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달라이 라마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핀들리 교수는 “오늘 한국의 스님들과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한껏 고무된 감정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 앞으로 불교가 현대인에게 얼마만큼의 휴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기대하며 그녀와 아쉽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호〉

blueeagle@dongguk.edu

발표자인터뷰 -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이재수 연구원

문화콘텐츠로 대중에게 다가서는 불교

불교가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채로운 영상과 불교 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애니메이션이라면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도 한번쯤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불교문화콘텐츠다. 2008 한국불교학결집대회에서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불교문화콘텐츠에 관한 논문 ‘한국불교와 불교문화콘텐츠’를 발표한 우리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이재수 전임연구원을 만났다.

이재수 연구원은 불교문화콘텐츠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교문화를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창의적으로 제작된 문화콘텐츠’라고 정의했다. 이 연구원이 불교문화콘텐츠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응용불교를 전공하면서부터다. 당시 불교문화콘텐츠는 불교철학·사상·문학의 내용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취약했다. 이 연구원은 전공공부를 통해 불교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했

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현재 그는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영역 중 전자불전문분야에서 연구 중이다. 이는 불교 텍스트, 즉 경전과 같은 불교관련 글을 전산화하거나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려대장경 전산화·한글 번역이 있다.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불교문화 중에서 콘텐츠로서 가치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기술도 중요하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에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며 “나날이 발전해가는 IT기술을 불교문화와 접목한다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교문화콘텐츠는 포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교란 불교가 어떤 것인지 이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다채로운 영상들과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불교문화콘텐츠는 포교를 보다 용이하게 도울 것이라고.

그렇다면 현재 불교문화콘텐츠는 어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이재수 연구원

느 정도 발전되었을까? 이 연구원은 “아직 시작의 단계”라고 말한다. 웹서나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 콘텐츠가 개발되었지만 아직 꺼내야 할 이야기가 많다고. 불교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스토리텔링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문화콘텐츠의 진정한 가치는 첨단과학이 제공하는 세련된 표현기술로 불교문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담겨진 인간 내면의 가치를 향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불교문화콘텐츠가 불교와 인간을 보다 가깝게 해줄 교과가 되길 기대해본다.

〈호〉

wondergirls@dongguk.edu

제8기 에코포럼

한반도 대운하와 생명가치의 재발견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자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신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의 티셔츠 미뤄졌던 제 23회 에코포럼의 개최일이 확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일시 : 2008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동국대학교 동국관 M동 3층 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
■ 주제 : 생명 평화 운동과 운하이야기 - 종교원탁회의의 실현과 생명의 의미 -
■ 주최 : 에코포럼
■ 주관 :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프로그램

- 사회자 : 김일중 교수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소장)
14:00 등록
14:10 인사말
14:20 주제 발표
발제자 : 김지하 시인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석좌교수)
15:00 휴식
15:10 토론 (각 20분)
토론자 : 김경재 교수 (전 한신대학교 총장)
김용해 교수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소장)
도박스님
윤순진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6:30 종합 토론
17:20 폐회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졸업요건 영어PASS제 모의토익

(5월24일)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서, 해당 학생들은 대학/학과의 지정된 영어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정규시험(TOEIC, TOEFL, TEPS)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서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접수 : 5. 19 (월) ~ 5. 21(수) 24:00까지 (동국대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2. 입금 : 5. 19 (월) ~ 5. 21(수) 24:00까지 (계좌이체, 야매 계좌번호 참조)
3. 접수증 출력기간 : 5. 19 (금) ~ 5. 21(토)
4. 취소 및 응시료 환불할 수 없습니다.
5. 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my page - 외국어PASS제 - 영어패스시험 신청 - 응시료 입금 - 접수증 출력
6. 시험 : 2008. 5. 24(토) 10:00~12:30 동국관 M405 ~ M412 강의실
7. 대상 : 영어PASS제 미취득자 및 일반재학생
8. 응시료 : 5,000원
9. 입금마감일 : 2008. 5. 21 (수) 24:00까지 (미입금시 접수 취소됨)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7-481766 (예금주 : 동국대학교)
10. 주의사항
가. 입금마감일까지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응시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행위 적발시 징계조치 됨.
다. 부정행위 적발시 대체강좌 수강 자격 취소됨
11.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12. 문의 : 외국어교육센터 (회화관 1층, 2260-3468, 3470)
13. 시험 주의사항 :
가. 9시 30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외국어교육센터

2008년 English Summer Camp 안내

여름방학 3주 집중 영어캠프 / 각 반 당 15명 인원으로 소수정예 24시간 원어민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 / 학점인정 및 졸업Pass제 통과

영어에 관심 있는, 그리고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실시하는 English Summer Camp는 학습 형태의 3주 단기 영어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해외어학연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어프로그램입니다. 6개의 레벨에 따른 수준별 영어 학습을 통하여 24시간 영어로만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전 영역의 통합과정과 보다 전문적인 content-based 과목이나 비즈니스 영어, 고급 영어 소설 읽기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영어 능력 향상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다양한 클럽 활동을 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의 반 배정과 원어민 강사 답답제의 실시, TA의 생활지도, 알뜰, 주별 학습관리 등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효과적이고 철저한 학습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English Summer Camp 특징>
* 레벨에 따른 수준별 학습
* 각 반 당 15명 인원으로 소수정예
* 3주간의 집중 영어교육
* 학습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외국인 선생님과의 노출 부여
* Speaking/Listening/Reading/Writing의 전 영역 통합 과정
* 영어인턴십에 따라 1-6단계로 레벨 분류, 해당 레벨에 따라 반 편성
<학점인정>
* 교과목명 : 집중영어연수(English Summer Camp)
가. 소속대학별 학문기초 외국어과목 최저학점 미충족시 학문기초교양 3학점으로 인정
나. 학문기초 외국어과목 최저학점 충족시는 자유선택 3학점으로 인정
<예치금 및 수강료 납부>
* 수강료 납부 : 온라인 송금 (6월 12일까지)
신한은행 140-007-481766 (예금주 : 동국대학교)
* 납부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취소 및 환불규정>
* 접수기간 (5월31일까지) 내 취소는 100% 환불
* 분반 시험 이후부터 개강 1주일전까지 (6월5일 ~ 6월13일) 취소는 80% 환불
* 6월13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은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2260-3468 ~ 3470

외국어교육센터

제4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주요 논문 정리

정리=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제2분과 티벳 & 중앙 아시아 불교

아프가니스탄 출토 불경 사본

199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계곡 동부 지역 '자르가란'의 석굴사원 폐허지에서 다양한 인도문자로 쓰인 불경 필사본 파편들이 있는 거대한 저장소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사본류는 기원전 2세기~8세기의 다양한 문자를 사용하여 패엽(貝葉), 화피(桦皮), 수피(獸皮)에 서사된 간다리어 혹은 산스크리트어의 불교문헌이었는데, 그 수는 작은 파편을 포함하면 10,000점 이상이고, 불경 연구에 기여할 만한 서너줄 및 그 이상의 단간(斷簡)만으로도 2,000점을 넘어선다.

새로 발견된 필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층은 고서체로 판단컨대 간다리, 카로슈티로 쓰여진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2세기)과 '현겁경(賢劫經)'(3세기)이고, 굽타-브라흐미 문자로 된 '승만부인사자(勝經)'(4-5세기), 길기트-바미안 문자로 쓰인 '무량수경(無量壽經)'(6세기) 등도 있어서 종래 네팸본에만 의존하던 불경사본 특히 간다리어로 쓰여진 초기대승불전 연구에 구체적 전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간다리어로 쓰인 대승경전 사본 중 연대가 가장 빠른 '현겁경(賢劫經)'을 발견한 것은, 초기대승경전이 간다리어로 쓰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나는 미국, 일본, 노르웨이 등 국제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이 사본들의 해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출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불교사본들을 짧게 소개하고, 국제연구 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마츠다 카츠노브 松田和信
(일본, 불교대학)

제9분과 요가 & 불교명상

복잡계 이론으로 본 깨달음의 탈신화화

연기적 관계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전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일상적 삶의 경이로운 재발견이야말로 한국불교가 지향하는 선종의 근본적 가르침이다. 복잡계적 관점에서 생명체의 특성이 개체고유성과 개방성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열린 관계에 깨어있을 때 아상(我相)이 고통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존재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근거가 된다.

한편, 복잡계적 접근으로 분명해지는 것은 수행에서의 끊임없는 정진의 중요성이다. 정진이야말로 깨어있음이라는 창발적 상전이를 위해서 자신을 극한의 입계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오각성에 있어서 깨달음이 곧 깨어있음이라는 현재진행형의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음마저 놓아버려야 할 것이며, 이때 탈속적이고 초인적인 수행보다는 나무하고 불 깊은 일상의 삶이 곧 진정한 수행이 된다.

그동안 한국 불교의 승가는 조선시대의 송유역불을 통해 천민의 지위 속에 이어져 왔고, 일제시대에는 일본 불교와의 강제적 통합을 통해 그 정체성 혼란은 극대화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간화선 수행과 철저한 깨달음을 강조한 성철은 한국 불교의 위상과 정체성을 일거에 높여 한국

불교 중흥의 기초를 이루는데 한 획을 그었다. 성철과 같은 스승이 있었기에 역사적으로 토속신앙이나 무속 차원으로 떨어진 한국 불교가 제 위치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불교에서 필요한 것은 성철 다음이다. 여전히 성철이 쌓아 놓은 탑 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입전수수(入塵垂手)해야 한다. 한국 불교의 미래는 성철을 극복하고 그가 닦아 놓은 기반을 넘어 미래를 모색하는 것에 있으며, 그것은 한국 불교가 철저하게 일반인들의 삶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위한 고민과 실천 방법을 승속이 함께 모여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불교가 매달리고 있는 산중의 '목적으로서의 관념적 깨달음'으로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과정으로서의 살아 있는 깨어있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기와 환경은 법성(法性)에 있어서 일체이고 서로 관계하며, 그 불이(不二)의 전체가 자기이다. 여기에는 '환경이 바로 자기이다'라는 명료한 철학이 있다.

우희중
(서울대학교 교수)

제8분과 불교예술 & 생명

선사상에 나타난 미학적 특성연구

선과 예술은 오랜 시간 수행의 도반처럼 함께 길을 걸어왔다. 특히 동양에서는 선을 수용한 예술 작품, 즉 선화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종종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현대미술에서는 이러한 미학들이 관념적으로 흘러 그 참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 서양의 미학이 도입되면서 동양미학은 그 정체성을 잃고 말았다.

같은 시기에 서양에서는 이미 서양미학의 한계성을 느끼고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선사상이 있다. 선사상은 예술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를 통하여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표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서 선사상이 수용되어 나타나는 미학적 특성들을 찾아보면 첫째 깨달음의 미학이다. 이들은 깨달음은 추상적인 환상이 아닌 생활속에서 실천 가능한 모습으로 느껴지며 따라서 돈오점수와 돈오돈수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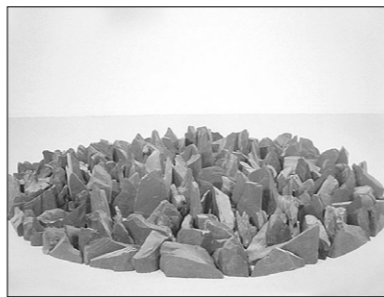
둘째는 자연미의 추구이다. 송고미로 대표되는 서양에서는 자연이나

대상에 일정부분 작위를 가하여 즉 인공적인 미를 추구하였는데 선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자연과의 일체감을 표현하고 예술가는 선택과 제시를 하는 역할로 변화해 가게 된다.

셋째는 인간을 위한 예술이다.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행위에 의하여 탄생하게 되는데 선사상을 수용하기 이전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놓고 그 논리에 맞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예술작품은 일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일부만을 위한 예술이 되었다. 하지만 선사상을 수용한 예술가들은 그러한 정의된 개념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자신의 감성과 느낌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미학적 특성들로 인하여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에서는 이러한 미학적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불교의 확산과 선의 체험을 경험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었다.

윤양호
(원광대학교 교수)



▲ Richard Long 작품 : 물일체(物我一體 : 자연과의 일체)를 표현



▼ Yves Klein 작품 : 일상에서 흔한 스펀지에 피란색을 칠하여 깨달음을 표현



제4분과 한국불교

'심문화쟁론'과 관련된 가지 문제점

종합과 화쟁의 특징을 가진 원효사상을 잘 드러낸 저술이 '심문화쟁론'이다. 원효 연구자들은 '심문화쟁론'의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전체 10권을 복원하면서 중간 중에서 '공유이집화쟁론', '불성유무화쟁론', '인법이집화쟁론' 등 3권을 복원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인법이집화쟁론'은 다른 판본으로 판명된 '이장의'에서 복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법이집화쟁론'을 제외시켜야 한다. 그럴 경우 '공유이집화쟁론'과 '불성유무화쟁론' 두 문만이 남게 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남는다. '공유이집화쟁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유 하나의 쟁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유화쟁'과 '삼성동이화쟁'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문화쟁론' 중간에는 '공유화쟁'과 '삼성동이화쟁' 및 남은 부분의 '무성유정유무'에 관한 것을 합하여 모두 3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심문화쟁'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화쟁이 10문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것이 심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간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10문을 지시하는 표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한 판본이 발견된다하여도 심문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간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문화쟁론'이 비록 중간이지만 화쟁의 핵심적인 내용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공유', '삼성동이', '무성유정유무' 등은 당시 불교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불교적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원효는 이러한 과제들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화쟁한다. 그의 화쟁은 논리를 통해 논리를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진리에 이르러는 데 있다. 이것이 그가 시대를 뛰어넘는 불교사상가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이정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제6분과 선불교

선과 중생구제

한국 근현대 불교계의 인물들은 대승 불교에서 한국 간화선의 특징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선사로는 근대 한국선의 중흥조로 회자되는 극 보수적인 간화선 전통주의자 경허, 전통불교 수호와 함께 불교의 대중화 및 활성화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온건한 개혁주의자인 용성, 마지막으로 불교수행자인 동시에, 시인이었고, 소설가였으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관되게 투쟁한 극단적인 진보적 개혁주의자 만해가 있다.

경허선사(鏡虛禪師)는 서산이후 단절되어 적막한 상태에 있는 한국 불교 선문의 법맥을 회복하고 새로이 선법을 선양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번창시키려 했다. 그는 구한말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묵묵히 산사에 중심을 두고 선종진작을 통한 불교중흥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당시 불교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한국 선의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경허는 정혜결사를 통하여 조선 후기의 불교계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

용성선사(龍城禪師)는 근대서구문명과 전통이 충돌했던 근대조선에서 불교의 개혁을 통해 불교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용성에 의하면 개혁이란

철저하게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며, 옛 조사들의 수행방법을 본받는 것이다. 즉 개혁은 하도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것이 용성 개혁의 요체이다. 용성은 선종 수행을 고집하기 보다는 중생을 제도하는 대중 교화에 평생을 일관하여 바쳤다.

만해선사(萬海禪師)는 선이 깨달음이라는 결과물을 세상으로 환원하는 시혜적 행위나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구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만해는 한편으로는 불교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겠다는 강렬한 구세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불교계의 세상을 벗어나려는 출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강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구세의식은 깨달은 자의 우월의식이 아니라, 저자거리에서의 동참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해에 의하면 진정한 선수행자는 자기희생이 전제된 채 입니입수(入泥入水)하는 동류의식을 갖춘 보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해의 보살행은 구원이나 시혜라기보다는 '더불어 삶'에 더 가깝다.

이덕진
(원원전문대학 교수)

달하나 천강에



신 성 현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나눔과 베품 그리고 '보시'

한 재단에 내놓습니다. 그와 세계부자 1·2위를 다투는 워렌버핏도 그 재단에 기부할 정도로 그의 재단은 아주 유명합니다. 빌게이츠 재단의 아프리카 돕기에는 돈이 물리는 바람에 세계의 실력있는 의사들이 너나없이 오지인 아프리카로 모여드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부의 진정한 가치는 나눔과 베품에 있습니다. 자신의 것은 남과 더불어 나누어 베푸는 것을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를 실천하는 이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에 가면 많은 보살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아파하는 중생의 고통을 연민하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손을 내미는 분들입니다.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흔히 불교

를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지니신 관세음보살과 같이 이웃에게 나눔과 베품의 손을 내민다면 그 자는 진정한 보살입니다. 그리고 보니 빌게이츠는 불교를 신앙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살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빌게이츠와 같이 돈이 꼭 많다고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도 드러내지 않게 보시를 행하는 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은 지난해 한 재단으로부터 학술상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일천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상금을 받으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상금의 전부를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기부했습니다. 어른들이 못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어린이들은 그들의 탓 때문에 못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집도 없으신 분입니다. 아니 그 흔한 작은 자동차조차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조차 불교생명나눔본부에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그 상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반문하여 봅니다. 당신은 저와 같이 '행편되면 해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다가 보시다운 보시도 한번 못해보고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하튼 저는 그런 분이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분의 그런 마음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동국 가족에게 널리 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동국대학교가 세계 일류대학교는 아닐지라도 이웃과 나눔과 베품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를 길러내는 대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반드시 우리 대학만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불교 정신에 기초한 우리 동국대학교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나요.

대들의 난 내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



△철없던 중학교 1학년 때 밤에 나홀로 페인트칠 하시고 수업시간마다 즐거운 음악을 가르쳐주시던 그 국어선생님이자 담임선생님이 그림입니다
△내 인생에 스승은 없다
△말기 암으로 견기조차 힘들었는데도 학생들에게 항상 씩씩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셨던 선생님. 유언으로 제자들이 공부하는 학교 도서관에 본인의 소장한 책을 기증하셨고 선생님의 학교장이 있던 날, 비가 부스스 내리는 가운데 무뚝뚝한 경상도 남교생 우리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아아 스승의 은혜는 하늘이여라.
△초등학교 4학년때, '유명한 사람되면 TV는 사랑을 싣고 나와서 반드시 첫번째로 찾겠다'는 각서 받아간 담임선생님
△학교에서 먼 곳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5학년때 선생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 등교하러던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12년동안의 초중고등 기간중 의무감으로 학교다녔던 적은 있었지만 즐거워서 다니고 싶어서 다녔던 건 그때가 유일했던 ... ㅎㅎㅎ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변화된 학교 모습 눈에 띄어

제1458호를 보면 우리학교가 현재 변화와 개혁의 몸살을 앓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건물의 리모델링, 새로운 UI를 발표하여 학교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는 등 캠퍼스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학교 내부의 변화는 과연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3면의 '입학조정안 발표' 기사를 보면 이러한 부분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난 해 이미 몇 개의 학교는 인원감축과 통폐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무계획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철학을 포함해서 인문·자연과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

이 사라진다면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학문적 미래가 불투명하다. 더 나아가 결국은 인기 학과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학교 측의 주장대로 학과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강화의 방법으로 정원감축과 통폐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결과·성과주의를 지양하고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학교와 해당 학과는 모색해야 한다.
도서관 열람실 부족에 대한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열람실 부족으로 인해 겪는 불편 상황에 대해 적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별관 열람실 24시간 운영과 배치 좌석관리를 담당하는 근로학생을 투입하여 '자리맡기'를 방지하겠다고 했으나 관리자가 아닌 근로학



생이라는 위치로 같은 교내 학생들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학교 측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성인다운 행동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박소현
(사과대 경제2·매체비평연구회)

동악은 시끌벅적

두리터, 학생쉼터로 남아야

두리터, '나체발', '백송쉼터' 등 우리에겐 익숙한 이름이다. 비록 특별한 편의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앉아서 쉬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쉼터다.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공간이다.
두리터는 예술대 학생들의 휴식공간이다. 그리고 예술대 행사를 치르는 공간이기도 하다. 학생회실 조차 없는 과거 있을 정도로 예술대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리터는 학생들의 쉼터이자 예술대의 유일한 공간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겨울방학 이후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두리터에 샌드위치·커피전문점을 짓기로 결정했다. 하나밖에 없는 휴식공간의 사할이 걸린 문제로 마땅히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상의를 통해 결정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대 학생들의 대표인 학생회장을 비롯해 네 과의 과장들과 학생회집행부, 학우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알게 됐다. 샌드위치·커피전문점이 들어서게 되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휴식처가 상업적 공간으로 변질된다.
두리터를 지키기 위해 교학과를 비롯해 학교 측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학

교 측은 공사를 진행하였다.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인 지하 두리터의 푸드코트 역시 학교 측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지하두리터는 연극과의 제작공간이자 미술학부의 전시공간이었다.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때도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교는 어떤 사업을 기획하기 이전에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와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
김용진 (예술대 영화영상4)

보리수 중도적 가치의 중요성

부처님 제자 가운데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다. 부자집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었다. 출가해서는 조금만 마음에 라자 가하의 쓸쓸한 숲(寒林)에 들어가 고행수도를 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별 진전이 없자 크게 낙망했다. 이를 안 부처님은 어느 날 그를 불러 상담했다.

“소녀, 그대는 집에 있을 때 거문고를 잘 다룬다는데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악기를 잘 다루었습니다.”
“어쩌면가. 거문고는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미묘한 소리가 나는가?”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거나,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조율해 주어야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수행도 그와 같다. 너무 급하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게을러진다. 수행자는 너무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수행해야 한다.”

잡아함 9권 '이십억이경(二十億耳經)'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수행에서 중도적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부처님이 가르친 중도(中道)의 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참고해야 할 가치다. 세상살이를 잘 하려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쳐도 곤란하다. 욕심이 과하면 붓물이 넘듯 부작용이 생긴다. 무순 일یدن 정도껏 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강조하면서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화제다. 공무원들도 덩달아 휴일 없는 근무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업무스타일은 사람을 쉬 지치게 한다. 쉬지 않고 밤낮없이 일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성과주의는 필연적으로 졸속을 불러오게 되고, 마침내 '쇠고기 파문' 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또 어떤 패착을 할지 걱정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것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홍 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독자 사진첩

어느 골목길

서울 용산구의 어느 골목길.....
도시 속이라고 믿을 수 없는 모습에 눈길을 멈추어 본다.

박진호 (이과대 생명과학3)

2008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1. 훈련 대상 : 대학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자
* 전역 1~6년차 예비군 (2007년도 ~ 2002년도 전역자)

2. 훈련 일정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일정	5.19(월)	5.20(화)	5.21(수)	5.22(목)	5.23(금)	5.26(월)	5.27(화)
대상	사과대 불교대	정산대 경주(캠)	공과대 (전기공학과 제외)	경영대	예술대 사법대 이과대 영상대 야간대	문과대 법과대 생과대	대학원 공대 (전기공학과 제외) 만해당 교직원

3. 훈련 장소 : 56사단 219연대 종로·중구 훈련장

4. 복 장 : 예비군복 (전투복, 전투화,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

5. 휴대품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등 신분 확인용)

6.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교육훈련은 09:00에 시작하여 18:00에 훈련 종료
나.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북한산 방향으로 200m 지점에서 34번 버스탑승(버스요금은 학교에서 조치함 : 승차 시 신분증 제시)
- 08시20분 이전까지 도착하여 버스 탑승 (지연 도착자 버스지원 불가)
다. 개인 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 09:00시 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 (위병소 통제)
라. 예비군복중 1가지라도 미착용 또는 불량자는 입소불가
마.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바. 개인명단 확인/상세문의: 예비군 연대본부 및 각 대학 학사운영실

* 훈련전일 지나친 음주는 기동적 자체

동국대학교 직장에비군 연대

(예비군 연대본부 : ☎ 2260 - 3047 ~ 8)

법학(공직, 의학전문)적성시험 대비 강좌개설 안내

1. 개설강좌(총 4강좌, 강좌별 2학점)

가. 논증적 사고특강(Special Lecture for Argumentative Thinking) - LEET 등 언어이해영역 : 홍성훈교수(동국대 박사수료, 비판적사고와 논술연구회 창립 회원, 동국대 논리학개론, 일반논리학, 과학적사고와 철학적사고 등 강의, 경기도 비판적글쓰기, 독서지도사 전문가사, 출제 및 검수위원, 논술지도사 재직위원 등)

나. 수리 및 논리퍼즐 특강(Special Lecture for Mathematical & Logical Puzzle) - LEET 등 추리논증영역 : 윤정희교수(서울대 항공우주학과 박사, 수리논증 전문가 등)

다. 비판적 사고 연습(Critical Thinking Practice) - LEET 등 논술 및 기초논리학 영역 : 이진남교수(미국 텍사스대 박사, 동덕여대 교수, 비판적사고와 논술 연구회 부회장 등)

라. 논술 연습(Argumentative Essay Practice) - LEET 등 논술 및 기초논리학 영역 : 홍상철교수(독일 쾰른대 박사, 경기도 비판적글쓰기, 동국대 논리학개론, 비판이론 강연 등)

2. 개설기간 : 2008.06.23(월)~07.16(수) / 여름계절학기 기간

3. 수업요일 : 주 4일 수업(월, 화, 목, 금), 15일간

4. 수업시간

구분	오후1	오후2	오후3
수업시간	13:00~14:50 (5~6.5교시)	15:00~16:50 (7~8.5교시)	17:00~18:50 (9~10.5교시)
해당강좌	논증적 사고특강	수리 및 논리퍼즐 특강	비판적 사고 연습
담당교수	홍성훈 교수	윤정희 교수	논술 연습 이진남교수 홍상철 교수

5. 수강지역 : 제한 없음

6. 수강료 : 과목당 25만원

7. 강좌개설 기준 인원 : 강좌별 15명 이상(수강신청 및 등록)

8. 추진 일정

구분	기간	내용	비고
수강신청	05.13(화)~21(수)		전화/방문 신청
수강료 납부	05.20(화)~22(목)		동일

* 수강료 납부 이후부터는 문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6월 12일(목)까지 추가접수함

9. 수강신청 방법
가. 재학생 및 일반인 : 문과대학 학사운영실로 문의(02-2260-3756)

10. 기타사항
가. 이수구분 : 전공 또는 자유선택
나. 성적평가 : A-F 등급평가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과대학 학사운영실(담당 김홍모 02-2260-3756, 이메일 gilhm@dongguk.edu)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식단

월	백김치찌개(2000)/계란햄볶음밥(2000)/치즈돈가스(3000)
화	잡채국밥(2000)/김치불고기비빔밥(2000)/돈가스(2500)
수	백다국행장국(2000)/오징어달걀밥(2200)/수제돈가스(3000)
목	참치김치찌개(2000)/평보리열무비빔밥(2000)/치킨가스(2500)
금	팔불주제비(2000)/완동기(2200)/갈비스테이크(3000)

상록원

월	연두부양냉장·해장국(2000)/최고기양송이볶음밥(2200)/날치알술밥(2500)
화	제육볶음(2000)/새싹참치김치비빔밥(2200)/문골비빔찌개(2500)
수	장조림백반(2000)/돈삼겹두부찌개(2200)/목배기밥(3000)
목	오징어불고기볶음(2000)/중국식볶음밥(2000)/사골우거지탕(2500)
금	산삼전구(2000)/제육볶음(2200)/부치술밥(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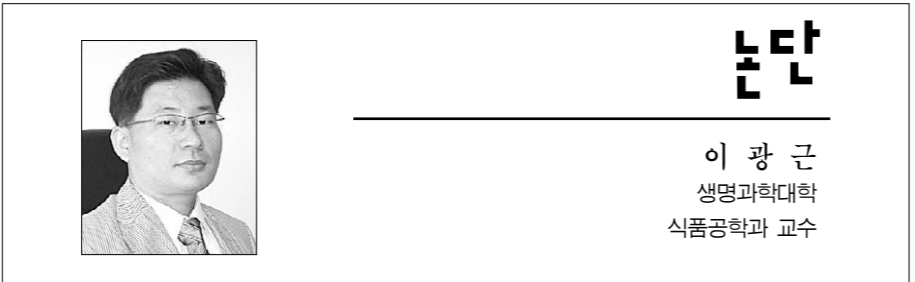
아리수

월	김치찌개(2000)/오징어삼추비빔밥(2000)
화	육개장(2000)/치킨콘소스덮밥(2200)
수	부대찌개(2000)/오삼불고기덮밥(2200)
목	낙지덮밥(2200)/미트볼허리타이(2000)
금	잡채국밥(2000)/닭강정(2200)

식품 안정성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자세

기호성 · 안전성 고려해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져야

식품안전성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요즘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언론보도를 보기도 어지러운 지경으로 광우병, AI, 이물질 그리고 신종유해(有害)물질 등 이무 해아릴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식품위해인자(危害因子)들이 신문지면을 장악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 녀석이 선생님이 가공식품은 일절 먹지 말라고 했다가 과자며 사이다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식품학자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광 군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

대한 얘기를 하려 한다. 자, 우선 왜 최근 5-10년 사이에 이러한 식품안전성을 위협하는 위해인들이 많이 대두되었는가 하는 의문부터 풀어보자. 제복에서 힌트를 얻은 독자들은 눈치를 챌겠지만 그 원인은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해인자 발생 원인

즉 이들은 모두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의도된 일종의 인과응보(因果應報)적 산물들이라는 것이다. 우선 광우병부터 살펴보면 쇠고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는 데 발병원인을 두는 것은 이견이 없다. 서울에 상륙한 고병원성 A/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좁은 공간에서 닭들이 밀집되어 사육되어 길러지는 실정이다. 몇 년 사이 유명해진 과자의 트랜스 지방의 탄생 비화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1900년 초 동물성 지방이 귀하던 시절, 어떻게 하면 흔하디흔한 식물성 지방을 동물성으로 바꿔 일반 대중에게 보급할까 고민하던 식품화학자가 '경화반응'을 시도하여 동물성 지방을 제조하는 것은 성공하였으나 그 부산물인 트랜스지방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아크릴아마이드도 우리 인간들이 감자를 보다

더 맛있게 먹기 위해 기름에 튀기다 보니 생겨난 물질이고 비타민 음료의 벤젠 또한 비타민의 효율적인 섭취를 위해 만들어진 음료에서 생겨난 것이다. 통조림식품에 존재하는 '퓨란'이라는 잠재적 발암물질 또한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 편하고 오랫동안 식품을 즐길 수 있을까하는 동기부여로 만들어진 통조림기술이 부수적으로 생산한 물질이다. 세상에는 공짜란 없고 어떤 신기술에 의해 개선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부수되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농업 및 식품공학의 기술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풍족한 식탁을 가지게 되었으나 부수적으로 많은 위해인자를 인지하게 된 것이 최근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 전에는 먹고 사느라 이러한 인자들에 대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올바른 식품 소비 방법

대략 앞서 설명한 식품위해인자들의 생성원인은 식품의 기호성을 증진시키거나 대량생산에 의한 식탁의 풍요를 도모하다 보니 생겨난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21세기도 8년이나 지난 시절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식품을 소비해야 할까? 대략 세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라고 권고하고 싶다. 첫째는 지난 30년간 확장일로로 누려왔던 화려한 밥상을 조금 정리할 때가 되었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너무 풍족한 고기류, 계란, 유제품 등을 70년대 이전의 기억을 되살려 소비를 줄여 보자.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의 식품을 똑같이 섭취하려고 의미는 절대 아니다. 둘째는 소비자 개인에 맞는 기호성과 식품의 안전성의 균형에 역점을 두어 취식하는 센스를 가져달라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소비자 개인의 판단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진정 감자튀김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되면 아크릴아마이드 등의 안전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즐기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반대로, 식품안전 또는 독성에 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소비자라면 좋아하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겨울철 군대에서 힘들게 훈련하다 먹는 컵라면은 비록 그 자체가 안전성을 저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한들 병사들의 느끼는 오감의 행복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항상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이 삼라만상의 진리이므로 현재의 식품에 대해 조금 너그러운 시각으로 바라봐 달라라는 것이다. 이전 소비자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식품을 즐겨야 한다. 홍수같이 쏟아지는 위해정보들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선진국의 국민답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섭취량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을 너무 썩 개체로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항상 본인이 조리할 경우의 생산비를 고려해 보고 지나치게 썩 식품류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학부모들이 점심특선으로 2만 원짜리 정식을 먹으며 3천원 학교 급식을 먹는 자녀들의 급식의 질을 비판하는 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위험받는 식품 안정성

최근의 가장 큰 화두인 광우병도 그 병의 실제와 생성기작 그리고 예방법 등이 아직 밝혀 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 과학적 이론이 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러 이슈적 공방이 과학적 토대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래 원고청탁을 받은 주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식품안전의 중요성'이었다. 하지만 본 필자는 시장개방의 전문가도 광우병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에 광우병과 쇠고기 수입에 대한 논의는 본고에서 하지 않고 대신 식탁안전의 위해인자들이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이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조치할 것인지에

메아리

일장춘몽(一場春夢)

▲동국제강의 창업자 장경호 회장은 1975년 사재 31억 원 상당의 부동산(현재 2천억 원가량)을 '불교문화진흥' 목적으로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방송(BBS)을 설립했고, 이밖에 불교문화센터 운영, 불교 서적 출판, 학술 진흥사업, 국제포교활동 등으로 지속적인 포교활동을 전개 중이다. ▲지난 2일 두산그룹은 중앙대학교에 1천2백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학교

를 인수했다. 이보다 앞서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한 삼성은 기업의 대학경영 참여 성공사례로 꼽힌다. 1996년 삼성이 인수한 이후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1997년 종합 11위를 차지했던 성균관대학교는 새 재단의 지원으로 10년 만인 2007년에는 6위를 차지했다. ▲우리대에도 발전을 위해 기업과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대학이 종합학교라는 점에서 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역으로 이용하면 이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먼저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 재단 이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이사는 전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된다. 또 이사의 3분의 2 이상 이 스님으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총장, 동창회장 등 당연직 이사와 개방형 이사로 구성된다. 안타깝게도 조계종 위주의 선출이 이뤄지는 현재의 구조로는 적극적인 기업 참여가 어려울 구조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이사회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종단 역시 학교를 위한 과감한 투

자를 할 여력이 없다면 기업의 참여 기부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불교도 살고, 종립대학도 살 수 있는 길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동국제강 장 회장이 정재(淨財)를 '대한불교진흥원'이 아닌 우리대학에 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삼성의 성균관대 인수, 두산의 중앙대 인수보다 30년은 빠른 불자 기업의 종립대학교 인수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앙대학교가 두산에 인수되었다는 뉴스를 보며 혹여나 일어날지 모르는 불날의 발칙한 상상을 해본다. 고석현 웹페이지부장 dgupress@dongguk.edu

사설 제도약의 기회 우리대학과 경기도, 고양시가 손을 잡고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는 우리학교가 고양시에 의학전문대학원과 생명과학대학을 설립·이전함으로써 의료와 생명 등에 대한 산학협력력을 이루고 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의 경우는 동북아 의료산업의 허브를 유지하는 데 의의를 둔다. 지난 15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고양메디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경기도가 우리대학과 협력해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질 의료산업단지 유치가 나선 것이다. 동북아 의료산업단지는 국가가 계획 중인 대형 프로젝트이다. 무려 5조 원 가량 국가차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이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대학은 BT분야의 세계적인 수준의 성장을 이뤄내고 경기도는 한·중·일 등 동북아 15억 명을 아우르는 거대한 의료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예상된다. 이로써 우리대학이 일류대학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성장에도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대학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지난 2005년 우리대학의 의과대학 이전을 교육부에서 허락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교육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힘써야 한다.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폐지에 따른 경주캠퍼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대학이 추진중인 첨단 의료복합단지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대학의 몇 십 년 후의 모습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다. 순간의 선택이 수십년을 좌우한다. 재단·종단·학생·교수가 합심해 고양메디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국대평등극노영 이주현 nitake@dongguk.edu 지금 우물 안에서는... 대한민국 "대학원 입학성 55%로 수 57위." "4천만" "대학 총학생 수 4만여" "대학 교육비" "너도 나도 학사님"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윤재웅 편집장 이운재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0-1270

성공 취업을 위한 2008년 2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8년 2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을 시행함을 안내하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유형별, 단계별 면접훈련을 통해 다양한 면접과정의 이해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를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유형별 면접실습을 통한 본인의 능력과약과 효과적 면접 전략 수립 2. 교육내용 가. 교육형태 : 1일(8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2008-2학기 재입학 시행 2008-2학기 재입학 신청과 심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대상자 가.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나. 미등록 제적생 다. 성적경고 누적 제적생(2006년 8월 31일 이전 제적생) 라. 자퇴생 (단, 징계처분받은 학생과 2005-1학기 이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입학 후 성적경고를 받은 제적생은 재입학 신청 불가) 2. 재입학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1) 1차 : 2008. 5. 27(화) ~ 5. 29(목) (2) 2차 : 2008. 7. 29(화) ~ 7. 30(수) 나. 신청장소 :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 학생상담센터(분관2층)에서 상담 후, 재입학 신청서에 상담 확인 도장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사공지사항 참조 2008-2학기 전과(전공변경) 시행안내 1. 전과 신청 자격 : 전과 제한을 받지 않는 2학기 ~ 5학기 재학생 * 휴학생, 편입생,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 수시모집 불교계추천전형 불교학부 입학생은 전과 신청 불가능 2. 전과 신청 및 접수 : 2008. 5. 19(월) ~ 5. 21(수) - 전일회방학과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3. 전과 전형 원칙 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나. 예체능계열 학과는 실기시험, 사범계열 학과는 교직인성검사를 시행 다. 학과(전공)별 세부 전형기준과 반영 비율을 학과(전공) 자체 결정 시행 * 전과 전형기준 결정 및 선발 권한을 학과에 위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사공지사항 참고요망

참 스승, 진정한 스승은 말하지 않는다 행동하라 잠재력을 깨우는 당신의 참된 가르침으로 당신의 지성, 그리고 동국대학교 2008학년도 교수 초빙 접수기간 : 2008년 5월 27일(화) ~ 6월 2일(월) 17:00까지 접수방법 :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서 직접 입력 * 세부사항은 5월 2일(금)부터 동국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 바랍니다. 무한동력 무한동국 -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8



1. 여유로운 산사의 휴식
2. 주지 스님과 함께 한 다도 시간
3.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사람들
4. 아침 예불을 드리는 모습



불교문화체험기- 강화도 연등국제선원을 다녀와서

나를 찾아 떠나는 산사의 하루

라.

'단 한 톨도 안되느니라' 발우공양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동 중에 점심식사를 놓친 참가자들을 위해 보살님들께서는 따뜻한 점심식사를 준비하십니다. 허나 일반인들이 속세와 절의 차이를 직접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왔으니, 바로 이 '발우공양' 시간이다. 편식하는 어린이의 적. 김치와 장아찌, 간을 최소화한 나물 무침이 전부인 소박한 반찬에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당혹한 표정이 역력하다.

공양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려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자극적인 입맛에 익숙한 이 속세의 인간들에게 발우(鉢盂) 앞에 놓인 이 '공양계'가 호된 질책을 가한다. 발우공양이란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아닌 것이었다.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절의 이 식사 예법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평등정신을, 조금의 낭비나 밥 한 톨의 낭김도 없어야 하기에 청결 정신까지 담고 있다고 한다.

'Let it be' 자연과 함께하는 참선 수행

저녁예불 후에는 하루를 마감하는 참선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자아와 명상 강의, 좌선 법을 기억하는가? 이를 배운 기차도 스님의 죽비 소리와 함께 시적인 1시간가량의 반가부좌 참선이 힘들진데, 의자문화에 익숙

한 외국인들은 오죽했을까. 고된 하루를 증명하듯 들리는 어떤이의 코고는 소리에 살포시 웃음 짓게 된다.

참선 수행 중 참방너머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는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 해 준다. "Let it be, Let it be...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십시오"란 스님의 말씀과 함께 깊은 밤 개구리 울음소리와 새벽의 청명한 새 소리는 바로 '자연'이 무념무상과 마음의 평화로 이끄는 자연치료제임을 알게 해준다.

나를 낮추었더니 내가 보이더라, 108배

새벽 3시, 아직은 찬기도 식지 않은 캄캄한 여덟속에서 고요히 산사를 울리는 아침 타종을 시작으로 템플스테이의 또 다른 하루는 시작된다. 간밤에 속세의 잠버릇 그대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참가자들은 눈곱도 채 폐지 못한 채 대웅전 법당 안으로 하나 둘 모여든다.

"108의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번뇌의 수를 말합니다. 우상을 섬긴다 생각지 마시고, 나를 낮추는 과정이라 생각 하고 수행 하십시오"

스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108배는 시작됐다. 30배, 50배, 80배... 어느새 땀방울에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만 외치던 절의 횃수는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 108배를 마치고 마시는 '이 가 시린 약수물' 한 바가지에 108배의 동안 지친 몸의 피로와, 속세에서 다친 마음의 피로가 함께 씻겨 내려감을 느낀다.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외국인들과 어린학생들에게도 스스럼없이 농담을 던지시며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 주지스님이신 우현스님, 인자한 눈주름에 새로 깨달은 이의 여유와 너그름이 엿보인다. 동글게 모여 앉아 주지스님이 직접 우린 차를 마시며 속세의 번뇌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고려시대의 문호인 이규보의 묘와 생가 체험 및 '진리의 길로 이끄는 등'이라 불리는 전통 연등을 만들기는 외국인 참가자

"알고 가면 좋아요"

템플스테이 가이드

■ 동국인이라면 공짜!

우리학교 정각원에서는 동국인의 선행활동, 휴식, 불교문화 체험을 위한 템플스테이 참가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 1회에 한하여 학생 100명, 교직원 50명 선착순으로 60000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료 후 참가비 납부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수료증을 정각원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템플스테이 희망자는 정각원 홈페이지의 '템플스테이' 메뉴나 학교 '마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11개의 44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다.

■ 이색적인 산사로의 초대

템플스테이 Theme	주요 프로그램	비 용
해인사의 '방하책(放下策:마음을 내려놓는다)'	- 해인사 전통문화체험, 흥류동 계곡 답사, 일백여분의 스님과 함께하는 아침 예불의 장엄행, 산내 19개 암자순례	4만원 (2박 3일: 6만원)
표충사의 '녹음·명상' 템플스테이	- 대나무숲 산행 및 폭포명상, 탐을리는 비석 '표충비' 방문, 국내최대 고산습지 '산들늪' 생태체험 등	4만원 (2박 3일: 6만원)
기림사의 '봄나을~차량기~' 현대 템플스테이	- 육법공양(향·등·차·꽃·과일·썰), 용연폭포로 향하는 명상의 길, 들차회 체험	3만원
굴굴사의 '선무도 명상 테리피' 템플스테이	- 읊조리는 선의 숨결, 선무도 수련과 함께하는 치유와 명상의 세계	4만원
백담사의 '님의 침묵'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 화이브리드·심장명상·애니그램 체험, 차운명상·만다라·요가·취명NLP·택전승실생활에유용한프로그램 마련	5만원

■ 참고정보

-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
www.templestay.com / 02)2260-1970-5

- 정각원 홈페이지
jeonggak.dongguk.edu / 02-2260-3016-7

정리 = <중>
jongseo0722@dongguk.edu

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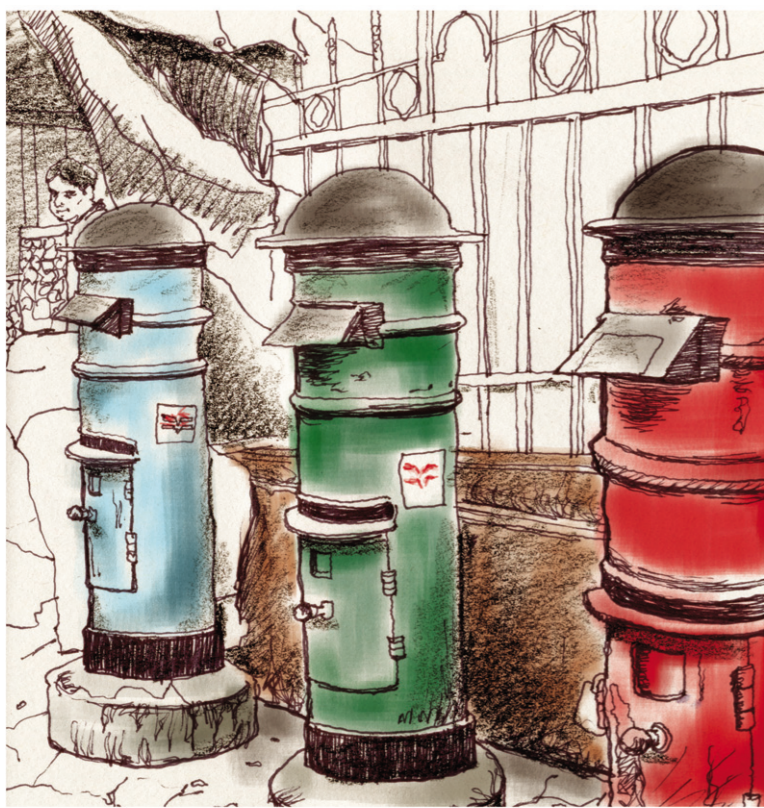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사찰에 숙박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들에게 먼저 알려지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단순히 스님들과 함께하는 절 체험에서 요즘은 역사탐방, 영어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만들기 등 산사의 문턱을 낮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는 절이 늘고 있다.

'고된 밥벌이에 지친 직장인들,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 가족들의 신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템플스테이의 인기는 분명 이유가 있다.

템플스테이를 끝내고 돌아서는 길,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울림이 식상하지만 '감동'이라는 단어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짧지만 소중한 주말, 종교를 떠난 산사 속 체험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지.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그림으로 본 인도이야기



<5> 인도에서 보내는 편지

풀까따 시내를 걷다가 예쁜 우체통 세 개가 우체국 앞에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파랑, 초록, 빨강의 우체통은 보내는 지역에 따라 각각 그 색을 달리 한다.
예쁜 우체통을 보니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야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변 사람들의 주소를 챙겨오지 않았고, 인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도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로 했다.

" "

삶은 어디를 관통하며 지나고 있을까?
아직 끝나지 않은 여행 일정 중에 무엇을 얻으려 하기 보단
그 동안 내가 가지려 했던 많은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내 안에 숨은 빛들이 세상에 나와 그 쓰임을 다하고
같이 나누며 부지런히 삶을 관철하며 닦아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늘 남아 있기를 ... "

김 상 남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지리교육과 96졸



최민희의 **생애** 숨쉬는 영국연수기

⑤ 즐거운 School Excursion

학교에서 마련한 방과 후 활동과 정규수업 외 선택수업은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에 매우 좋은 시간이다. 내가 다니던 여학원은 매우 수요일 저녁과 주말에 국제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선뜻 참가하기에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친구들 손에 이끌려 하나 둘 함께하기 시작한 덕분에 영국 연수생활은 훨씬 더 즐거워졌다.

International Food Evening. 수요일 저녁 행사로는 가장 먼저 참여해 본 것이었다. 학생들 각자 모국 음식을 한 가지씩 푸짐하게 만들어와 함께 나눠먹는 자리이다. 나는 닭볶음탕을 만들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고추장이 매우 유용했다. 외국인 친구들이 먹기 좋도록 매운맛을 줄이기 위해 간장을 더 많이 넣었더니 인기 만점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요거트 아침식사, 일본의 초밥, 이탈리아의 라자냐와 티라미수, 스페인의 상그리아 등 많은 외국 음식들을 맛보는 자리였다. 서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리법을 공유하면서 세계 속에 친구들을 만들어갔다.

Pub Tour. 영국에서 펍은 서민문화의 대표라고 볼된다. 그래서인지 작은 체스터 시내에도 펍이 여러 개 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학교 스태프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체스터 시내 곳곳의 펍을 돌아다닌다. 평균 서너 개의 펍에 가게 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맥주를 주문해 마시며 서로 친해질 수 있다. 리버풀이나 맨체스터의 경기, St.Patrick's Day 등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펍은 현지인들로 무척 시끌벅적해졌다. 나는 펍투어에 자주 참가하게 되면서 여러 유럽친구들과 더불어 학교 스태프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영국 현지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문화를 함께 체험하게 됐다. 주말이면 자주 모여 맥주를 마시고는 했는데, 금요일 밤이면 노래방 기계를 들여오던 펍, 디스코텍으로 바뀌던 펍에 가기도 했다. 뒤편뒤편해도 우리의 단골은 영국 언더 밴드들의 라이브 공연을 들을 수 있는 펍이었다.

Tourist Attraction Tour. 국제학생들을 배려한 가장 경제적인 프로그램이다. 체스터 주변의 주요 관광명소에 하루일정으로 다녀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저렴하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고도(古都) 요크(York) 투어와 웨일즈(Wales)의 스노도니아(Snowdonia) 하이킹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개인적으로 갔더라면 최소한 £50는 필요했던 요크 관광을 £30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었다. 영국인 가이드 아저씨의 설명이 더욱 유익했다. 이 아저씨와 친해져 스노도니아 하이킹도 가게 된 것이었다. 슬레이트들로 이뤄진 1,000m의 산을 밀착 얇은 운운화를 신고 오르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웨일즈는 정말 아름다웠다.

지금도 이들 프로그램에 얽힌 무용담은 외국인 친구들과 나누는 이메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다.

최민희 (사과대 신병사)